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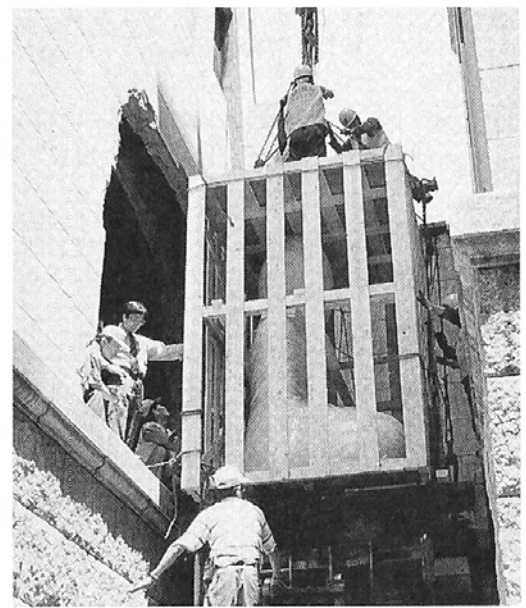
현 불 뉴 스

모악산 송신탑 이전요구

전북 불교·시민단체 산정상 방송·통신시설 환경 훼손

전북지역의 금산사 경실련 전북지부 등 40여개 불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최근 지역의 상징인 모악산을 살리기 위해 정상의 KBS송신탑을 옮기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모악산 정상의 KBS송신소를 철거하여 원형을 되찾고 민족정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현재 모악산 정상에는 KBS MBC송신소 등 방송시설과 한국통신 이통통신 등 통신시설 경찰 항만 국가보안기관등 9개 기관이 거대한 건물로 입주해 있고 철책시설로 인해 정상이 훼손된 상태. 이들 시설들은 금산사 땅인 모악산 정상을 20년전인 77년 4월 19일 독재정권시절 무상임대라는 최악의 계약으로 3백평

을 KBS가 임대했으며 또 그 옆의 한국통신 등 통신시설의 땅은 85년 6월 정부에서 징발 보상금으로 공탁금 1만원에 매수해버린 땅이다. 모악산 정상 시설들은 원래 KBS 송신소 부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계약을 위반한데다 4월18일자 KBS와 금산사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산사가 KBS송신탑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불교 사회 시민단체들도 간담회를 열어 모악산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철거 및 진안 민역산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측은 이전 설비의 어려움과 1백여곳의 새로



‘이전유물 1호’ 철조여래상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유물 중 최대·최중량급인 ‘춘공리 철조석가여래좌상’(보물 322호)이 지난 6월26일 경북군내 신축중인 임시 국립중앙박물관(조선왕릉 역사박물관)으로 옮겨져 ‘이전유물 1호’로 기록됐다. 높이 2.81m 무게 6.2t의 이 철불은 이전을 위해 철어낸 박물관 2층 불상전시실 동쪽벽을 통해 나무상자에 보존된 채 옮겨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해인사골프장 정부탄원 결의

총림등 5개대책위 ‘고법허용’ 긴급회의

〈속보〉서울고등법원의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판결과 관련 가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지구 조계종대책위원회(위원장 서용), 해인사총림 대책위원회(위원장 지관해인사주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학) 등 5개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해인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판결이 국립공원내에는 골프장, 스키장 등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자연공원법개정안(7월1일부터 시행발효) 취지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현수막부착 △증단차원의 반대운동 참여 촉구 △증단관계부처에 탄원서 제출 △전국환경 및 사회단체

의 공동대책 촉구 △주민의지 결집 △골프장부지 상시감시단 가동 △합법소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가기로 결의했다.

경주시 새청사부지 황성공원결정 ‘반발’

경주경실련, 불교연합회, 불교청년회 등 30여단체로 구성된 ‘경주시청사부지 철거운동범시민연합’은 6월13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청사 이전계획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경주시청사 부지로 확정된 황성공원에는 신라원성왕대 감현이 호랑이를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는 호원사터가 남아 있다.

진신사리 이운의식 ‘서울도심서’

조계종 감은사지석탑사리등 문화재관리국서 인수

11일 종로·을지로 26일 부처님 사리 이운 및 봉안위원회(위원장 월주)를 구성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봉안위에 따르면 부처님사리 이운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법회를 갖고 이어 대한문-을지로-보신각-조계사에 이르는 이운행진을 펼친다는 것. 취타대를 선두로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1백여 명이 번을 들고 뒤에 원로스님들이 증명법사로 따른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40여명의 스님

들이 2대의 연에 나누어 이운할 예정이다. 이번 이운되는 성보는 지난 5월 감은사지 동탑체과정에서 발견된 사리54과 사리방 뚜껑 반지와 나원리 5층 석탑에서 나온 사리15과 금불상이다. 이들 성보는 7월31일까지 20일간 조계사에 전시되며 사리외의 유물은 다시 문화재관리국에 반환된다. 봉안위 집행위원장 원로스님

임원진·행사등 결정 3국불교대회 준비위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준비위원회(위원장 지하·총단협 부회장)는 6월27일 종단협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월하스님(조계종 중정)을 명예회장 대회장에 월주스님 등으로 하는 3국불교우호대회 임원단을 구성했다. 준비위는 또한 대회기간중 9월11일 오후9시부터 동국대운동장에서 불교문화대제전과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병행기로 했다.

김포학사 이전추진위 구성

김포 금강사 일대를 학사 이전부지로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성부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김포부지를 확정, 9월 공사를 착공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6월13일 운영협의회에서 추천한 방지하스님을 학장으로 승인하고, 학장을 위원장으로 한 ‘김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학사이전 작업을 추진기로 했다. 이날 정법스님(상원사 주지)이 감사로 선임됐다. <관련기사 4면>

복구비 약속이행 촉구 조계사, 현대건설에

조계사는 지난 6월26일 현대건설이 사실상 복구비지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후 조계사에 피해를 끼친 것은 인정하지만 △공인기관의 조사를 거쳐 그 인과성을 규명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복구비도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사 총무 선광스님은 “사실상 복구비 지급 거부 또는 약속을 흥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제 와서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를 인정하면 당연히 복구해야 하는 것이 대기업에 걸맞는 처사”라며 복구비지급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국특신청: 737-0691

대행스님 뉴욕법회 ‘성황’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 뉴욕초청 대법회 및 불교음악회가 지난 6월22일 퀸스클리치 콘서트홀에서 현지 스님을 비롯한 스리랑카스님들과 원불교 기독교 종교지도자 및 한국인 불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지원장

조계종 121회 총회

남지 않도록 했다. ○...총회 마지막날 ‘산중총회법’ 심의에 들어간 총회의원들은 비구니의 산중총회구성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총광스님은 “비구니계를 수지한지 20년이 경과해야 산중총회구성이 될 수 있다”는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구니의 선거권 자격을 비구와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스님들이 “비구니의 참정권을 전면 반대”하자 장운스님이 “비구와 비구니의 선거권자격을 같이 하기보다는 비구니의 경우 계를 수지한지 10년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비구니의 참정권논란이 저녁 10시까지 계속되었으나 합의의도를 이루지 못한채 총회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지난 120회 총회에 이어 또다시 성원미달로 폐회가 되고 말았다. ○...한편 총회의원들은 22일 ‘한·약본

분담금납부법등 5개법안 통과

○...개정된 ‘승려법’의 주요골자는 비구(니) 및 사미(니)의 재적본사 이적을 금지시키고 다만 사승이 계속 될 경우 사승이 계속 될 경우 사승을 정해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타종단 소속 승려의 경우 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단에서 사미계 및 비구계를 수지하도록 승격취직을 가능하게 했다.

승려 재적본사 이적금지...연말까지 유예 관람료 30% 총무원·사찰 공동관리키로 비구니스님참정권 성원미달 결정 유보

○...7월1일부터 관람료 자동화가 실시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관람료관리법’은 관람료 총수입의 30%를 총무원과 사찰이 공동으로 예치하고 관람료분담금 12%, 교육특별분담금 5%를 납부토록 했다. 관람료액의 책정 및 조정,관리를 위해 13인 이상 15인 이하 관람료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람료는 총무원 재부가 발행한다.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서는 분담금을 중앙분담금 관람료분담금 교구분담금 특별분담금 직영분담금등 5개로 세분하고 교구분담금은 중앙분담금액의 150%를

○...조계종 중앙총회는 121회 임시총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비롯 10여개의 안건처리를 위해 7월 중순경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의 임정’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한의학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총회의 결의에 뒤이어 불교약사회 회원 20여명이 총무원을 방문, 중앙총회에 드리는 글과 영의문을 발표하고 “중앙총회의 결의는 한약분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된 것이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총회의 사과를 요청했다.

집집마다 「불자의 집」, 차량마다 「우리는 불자」 명판을 붙입니다

◆7도 칼라로 제작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몇 불자, 긍지있는 불자가 됩시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극락정토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불자의 집」 명판 붙이기 운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한 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한 이 운동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크기: 6cm x 7.5cm



크기: 3.5cm x 10.5cm

- ###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차량에 부착해도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4. 차량용(유리후면부착)으로 좋습니다
- ### 보급방법
- 사찰, 단체에 보급합니다.
- ### 크 기
- 3.5cm x 10.5cm, 6cm x 7.5cm
-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